국어 수능특강

적용학습 사회 1. 법의 적용 <EBS변형문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분석**

법은 인간의 생활 관계에서 바른 질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규범이다.[법의 목적과 개념 정의 : 바른 질서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규범] 일반적으로 법의 적용은 **삼단 논법**을 따르는데, ①추상적인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②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소전제로 하여 ③판결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법의 적용 : 삼단 논법 – ①대전제 ②소전제 ③ 결론] 대전제인 법규가 명확하고 소전제인 사실 관계가 확정된 것이라면 삼단 논법을 통해 논리 필연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은 소송을 제기한 측인 원고(原告)와 소송을 당한 측인 피고(被告)의 분쟁을 다루는 도구이기에 그렇게 간단히 **삼단 논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중 하나는 소전제가 되는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다.[문제 상황 : 삼단 논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 독해 포인트 : 문제점 : 삼단 논법이 적용 되지 않는 경우 :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 1문단 : 삼단 논법에 따른 법 적용의 어려움

우리나라 법제에서 사실 관계의 확정은 반드시 증거에 기초하여야 하는데, 그 사실 관계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조사됨으로써 인정될 수 있다. 다만 ①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그대로 인정**하면 증거를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판결로 이어진다. 이른바 **청구의 인낙**(認諾)*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청구의 인낙이 일어나는 경우는 대개의 소송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②**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법률상 다른 주장을 펴는 예가 가끔 있는데, 이 경우에도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증거 조사란 사실 관계에 대하여 쌍방 간에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바로 판결을 하는데, 그 결론은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예외가 있다면 원고의 주장이 그 자체로서 타당한 근거를 가지지 못한 경우이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인정하는 두 가지 경우 ①, ② :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음]

→ 독해 포인트 : 사실관계의 확정 ① –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인정하는 경우 –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없음 → 바로 판결

▶ 2문단 : 증거에 따른 사실 관계의 확정

그러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인정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증거 제출에 대해 피고가 변론(辯論)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①**부인**(否認),/ 그러한 사실 관계의 존재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②**부지**(不知),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③**침묵**(沈默)의 태도를 취할 수 있다.[문답법 / 피고인의 변론 방법 세 가지①부인, ②부지, ③침묵] 이때 피고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는 그 후의 심리(審理)*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침묵의 태도를 취한 경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명백하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자백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진다. 부인을 한 경우와 부지로 답한 경우는 원고가 증거로 인정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한다.

▶ 3문단 : 피고의 변론 방법 : 부인, 부지, 침묵

→ 독해 포인트 : 사실관계의 확정 ② – 피고의 변론 방법 세 가지 : ①침묵은 원고의 주장을 명백하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자백으로 받아들여짐 / ②부인, ③부지는 원고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함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법정에 제출된 자료가 증거로 인정되면, 법관은 이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심증(心證)을 형성하고 법을 적용하여 판결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기 위해 증거에 쓰이는 기초 사실을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고, 때로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문제 상황 – 증거로 쓰이는 기초사실의 입증의 어려움] 이런 경우에는 입증에 따르는 곤란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사실 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①**추정**(推定)하거나 ②**의제**(擬制)하기도 한다.[해결방법 : 추정과 의제] 추정은 어떤 사항과 동일한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다른 사항을,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일단 진실로 가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추정의 개념 정의]을 말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동일 사건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측하여 인정하는 것이 추정의 예[추정의 예시]인데, 추정은 불이익을 받는 자가 반대 사실 관계를 입증하면[추정의 번복 요건] 번복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의제란 어떤 사항이 다른 사항과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두 사항을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의제의 개념 정의]을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의 청구권에 있어서 태아(胎兒)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제의 예시]를 들 수 있다. 즉 법이 공익상의 필요 등 때문에 사실 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법 정책적으로 확정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생활의 필요에 의해 사실로 확정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증만으로 번복되지 않는 것[의제는 추정과 달리 반복만으로 번복되지 않음]이 특징이다.

▶ 4문단 : 추정과 의제

→ 독해 포인트 : 제출한 자료를 증명하기 쉽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 : 추정과 의제

→ 추정과 의제의 차이 : 추정은 반증이 있으면 번복됨 / 의제는 반증만으로 번복되지 않음

* 청구의 인낙 :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인 권리나 주장을 전면적으로 긍정함.

* 심리 :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

***지문확인**

1문단
법이 적용되는 삼단 논법

• 법의 개념과 적용방법 : 삼단 논법
① 대전제: 추상적 법규 → ② 소전제 : 구체적인 사실 관계 → ③ 결론 : 판결
☆ 그러나! - 삼단 논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문제 상황 제시

● 내용전개방식 : 정의

2문단
사실관계의 확정 :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 사실관계의 확정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 청구의 인락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법률상 다른 주장을 펴는 경우
→ 둘 다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음. → 판결

● 내용전개방식 : 정의, 구분

3문단
사실관계의 확정 :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 피고인의 변론 방법 세 가지
① 부인 :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② 부지 : 사실 관계의 존재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함
③ 침묵 : 아무 말도 하지 않음
→ ③침묵은 원고의 주장을 명백하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자백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짐
/ ①부인과 ②주지는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함.

● 내용전개방식 : 정의, 구분, 문답

4문단
추정과 의제

• 증거에 쓰이는 기초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때론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문제 상황)
→ 추정과 의제
① 추정 : 어떤 사항과 동일한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다른 사항을,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일단 진실로 가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 추정의 사례 제시 / 반증이 있을 경우 번복 가능
② 의제 : 어떤 사항이 다른 사항과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두 사항을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 의제의 사례 제시 / 반증이 있어도 번복이 불가능

● 내용전개방식 : 정의, 구분, 예시

***지문확인 문제**

1. 인간의 생활 관계에서 바른 질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규범을 무엇이라 하는가?

2. 법의 적용은 무엇을 따르는가?

3. 법의 적용에서는 ( )를 대전제로 하고 구체적인 ( )를 소전제로 하여 ( )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4. 우리나라 법제에서 사실 관계의 확정은 반드시 무엇에 기초하여야 하는가?

5. 청구의 인낙이 일어나는 경우는 대개의 소송에서 찾아보기(쉽다/어렵다)

6. 원고가 제출한 근거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법률상 다른 주장을 펴는 경우에는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

7. 6의 답의 이유는 무엇인가?

8.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을 할 때 원고가 승소하지 못할 수 있는 예외는 어떤 것인가?

9. 원고의 증거 제출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10. 원고의 증거 제출에 대해 그러한 사실관계의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11. 원고의 증거 제출에 대해 피고가 침묵하는 경우에는 판결이 어떻게 되는가?

12. 원고가 적법하게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증거에 쓰이기 위해 기초사실을 증명하는 일은(쉽다 / 어렵다)

13. 기초사실을 입증하는 데 따르는 곤란함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14. 두 사람이 동일 사건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측하여 인정하는 것은 어느 경우의 예인가?

15. 추정은 반대사실을 입증하면 번복될 수 (있다/없다)
의제는 반대사실을 입증하면 번복될 수 (있다/없다)

***지문확인 문제 [서술형 대비]**

16. 법에서 삼단 논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본문에서 확인되는 것을 적으라.)

17. '청구의 인락'이 무엇인지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하라.

18. 의제에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음에도 사실로 확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계 변형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은 인간의 생활 관계에서 바른 질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규범이다. 일반적으로 법의 적용은 삼단 논법을 따르는데, 추상적인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소전제로 하여 판결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대전제인 법규가 명확하고 소전제인 사실 관계가 ⓐ확정된 것이라면 삼단 논법을 통해 논리 필연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은 소송을 제기한 측인 원고(原告)와 소송을 당한 측인 피고(被告)의 분쟁을 다루는 도구이기에 그렇게 간단히 삼단 논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중 하나는 소전제가 되는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우리나라 법제에서 사실 관계의 확정은 반드시 증거에 기초하여야 하는데, 그 사실 관계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조사됨으로써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그대로 인정하면 증거를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판결로 이어진다. 이른바 Ⓐ청구의 인낙(認諾)*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청구의 인낙이 일어나는 경우는 대개의 소송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법률상 다른 주장을 펴는 예가 가끔 있는데, 이 경우에도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증거 조사란 사실 관계에 대하여 쌍방 간에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바로 판결을 하는데, 그 결론은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예외가 있다면 원고의 주장이 그 자체로서 타당한 근거를 가지지 못한 경우이다.

그러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인정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증거 제출에 대해 피고가 변론(辯論)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인(否認), 그러한 사실 관계의 존재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부지(不知),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침묵(沈默)의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이때 피고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는 그 후의 심리(審理)*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침묵의 태도를 취한 경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명백하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자백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진다. 부인을 한 경우와 부지로 답한 경우는 원고가 증거로 인정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법정에 제출된 자료가 증거로 인정되면, 법관은 이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심증(心證)을 형성하고 법을 적용하여 판결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기 위해 증거에 쓰이는 기초 사실을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고, 때로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입증에 따르는 곤란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사실 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정(推定)하거나 ㉡의제(擬制)하기도 한다. 추정은 어떤 사항과 동일한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다른 사항을,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일단 진실로 가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동일 사건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측하여 인정하는 것이 추정의 예인데, 추정은 불이익을 받는 자가 반대 사실 관계를 입증하면 ⓔ번복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의제란 어떤 사항이 다른 사항과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두 사항을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을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의 청구권에 있어서 태아(胎兒)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즉 법이 공익상의 필요 등 때문에 사실 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법 정책적으로 확정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생활의 필요에 의해 사실로 확정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증만으로 번복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 청구의 인낙 :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인 권리나 주장을 전면적으로 긍정함.

* 심리 :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

[교재 변형 문제]

1. 윗글을 근거로 할 때, 제시된 내용의 진위를 바르게 판단하지 않은 것은?

	내용	진위의 판단
①	대개의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반박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다.
②	법은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 규범으로, 소송을 제기한 측과 소송을 당한 측의 분쟁을 다루는 도구이다.	그렇다.
③	'부인'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가 변론할 때 취할 수 있는 태도 중 하나이다.	그렇다.
④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그와 관련된 법규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삼단 논법에 의해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	그렇다.
⑤	두 사람이 동일 사건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측하여 인정하는 것은 '추정'에 의해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다.

2.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제시된 소송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확정되지 않은 사실 관계: '을'이 '갑'의 자전거를 고의로 망가뜨렸다.

• 소송 전개: '갑'이 '을'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 사실 관계와 관련한 법규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사실 관계가 확정되어 삼단 논법에 따라 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된다면 민법 제750조는 대전제, "'을'이 '갑'의 자전거를 고의로 망가뜨렸다."는 결론이 되겠군.
② '을'이 '갑'의 자전거를 고의로 망가뜨렸다는 물증이 소송 전개 중에 발견되지 못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법관은 이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심증을 형성하겠군.
③ '을'이 '갑'의 자전거를 고의로 망가뜨렸다는 증거가 '갑'에 의해 제시되고 '을'에 의해 청구의 인낙이 이루어졌다면, 증거를 조사해야만 판결을 내릴 수 있겠군.
④ '을'이 '갑'의 자전거를 고의로 망가뜨렸다는 증거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법률상 다른 주장을 펼쳤다면 증거 조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겠군.
⑤ '을'이 자전거를 고의로 망가뜨렸다는 증거를 '갑'이 제출한 것에 대해 '을'이 침묵의 태도를 취했다면, 이후 재판 과정에서 침묵이 '을'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겠군.

3.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① ㉠은 확실한 사실만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특징이 있다.
② ㉡은 본질이 다른 것을 법률상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상이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③ ㉠은 ㉡과 달리 반대 사실 관계만 입증된다면 번복될 수 없다.
④ ㉡은 법규에 의해 일정한 사실 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확정한다.
⑤ ㉠은 ㉡과 달리 입증에 따르는 곤란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4.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한 것은?
① ⓐ: 체계나 견해, 조직 따위가 굳게 섬. 또는 그렇게 함.
② ⓑ: 어떠한 것을 받아들임.
③ ⓒ: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봄.
④ ⓓ: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옳지 아니함을 그에 반대되는 근거를 들어 증명함. 또는 그런 증거.
⑤ ⓔ: 발표한 의사를 거두어들이거나 예정된 일을 없애 버림

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법이 적용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방법을 경우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였다.
② 다른 학자의 이론적 틀에 따라 법의 적용을 분석하고 있다.
③ 통설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분석한 후 새로운 해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④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비교하며 법의 현실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⑤ 저명한 학자의 분석과 전망을 제시한 후 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6.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때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② 법의 적용 방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③ '청구의 인낙'이 현실의 소송에서 자주 있는가?
④ 원고의 증거 제출에 따라 피고가 변론할 수 있는 태도에는 무엇이 있는가?
⑤ 추정의 경우 불이익을 받는 자가 반대 사실 관계를 입증하면 번복할 필요가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

7. 윗글의 문단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문단 : 법의 삼단 논법의 적용 과정
② 1문단 : 삼단 논법에 따른 법 적용의 어려움
③ 2문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④ 3문단 : 피고의 변론 방법 : 부인, 부지, 침묵
⑤ 4문단 : 증거의 기초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 추정과 의제

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글과 관련된 주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② 법의 삼단 논법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그럴 경우의 법의 적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③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④ 설명 대상을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⑤ 대립적인 견해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9. Ⓐ와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근거를 피고가 인정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② 증거를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
③ 대개의 소송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④ 법을 삼단 논법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사실 관계를 확정할 때 일어날 수 있다.
⑤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인 권리나 주장을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것이다.

10. 다음 중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원고가 제시한 증거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② ㉯ : 원고가 주장한 증거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다.
③ ㉰의 경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자백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④ ㉮, ㉯은 피고가 증거로 인정될만한 자료를 제출해서 입증해야 한다.
⑤ ㉮, ㉯, ㉰은 모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인정하지 않을 때 피고의 변론 방법이다.

11.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법의 적용되는 과정
– 삼단 논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사실관계 입증 여부에 따라
② 삼단 논법의 원리
– 대전제, 소전제, 결론을 중심으로
③ 의제와 추정의 공통점과 차이점
– 현실에서 사용되는 사례
④ 피고의 변론 방법
– 부인, 부지, 침묵을 중심으로
⑤ 법의 적용의 한계와 대안방안
– 법의 개정과 적용을 중심으로

12. 이 글에서 사용된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법 : 인간의 생활 관계에서 바른 질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규범
② 부지 : 원고의 증거 제출에 대해 그러한 사실 관계의 존재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변론하는 것
③ 부인 : 원고의 증거 제출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④ 추정 : 어떤 사항과 동일한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다른 사항을,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일단 거짓으로 가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
⑤ 의제 : 어떤 사항이 다른 사항과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두 사항을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을 말하는 것

13.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증거에 따른 사실관계의 확정되는 경우
② 피고의 세 가지 변론방법 부인, 부지, 침묵
③ 추정과 의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④ 법의 삼단 논법의 적용 과정
⑤ 사실 관계에 따른 법의 적용 과정

14. 4문단의 전체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제출된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기 위해 증거에 쓰이는 기초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② 원고의 증거 제출에 대해 피고가 변론할 때 취할 수 있는 태도인 부인, 부지, 침묵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
③ 앞의 내용들을 요약한 후 현실적으로 삼단 논법을 간단히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④ 입증에 따르는 곤란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사실 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정하거나 의제하는 경우의 사례와 번복 여부를 설명하고 있다.
⑤ 추상적인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소전제로 하여 판결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법의 삼단 논법을 설명하고 있다.

15. 윗글을 바탕으로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은 바른 질서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② 법의 적용에서는 확실히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도 공익상의 필요 등에 의해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③ 피고가 침묵으로 일관하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④ 삼단 논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은 대전제가 되는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⑤ '청구의 인낙'은 현실의 소송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제시된 소송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확정되지 않은 사실 관계: '을'이 '갑'의 옷을 찢었다.

• 소송 전개: '갑'이 '을'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 사실 관계와 관련한 법규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삼단 논법을 적용할 수 없겠군.
② '을'이 '갑'의 옷을 일부러 찢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는데 '을'이 그 증거를 인정한다면 바로 판결을 할 수 있겠군.
③ '을'이 '갑'의 옷을 일부러 찢었다는 증거가 '갑'에 의해 나왔는데 '을'이 이것을 부인한다면 원고인 '갑'은 증거로 인정될만한 자료를 입증해서 제출해야겠군.
④ '을'이 '갑'의 옷을 일부러 찢었다는 것을 도저히 증명할 수가 없다면 사실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정'하거나 '의제'해야겠군.
⑤ '을'이 옷을 일부러 찢었다는 증거를 '갑'이 제출한 것에 대해 '을'이 '부지(不知)'한다면 '을'은 자백한 것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겠군.

17. 다음 <보기>의 빈 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이 글은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의 적용은 (A)을 따르는데, 추상적인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소전제로 하여 판결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삼단 논법을 간단히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인정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증거 제출에 대해 피고가 변론할 때 취할 수 있는 태도에는 부인, 부지, 침묵 세 가지가 있다. 적법하게 법정에 제출된 자료가 증거로 인정되면, 법관은 이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B)을 형성하고 법을 적용하여 판결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기 위해 증거에 쓰이는 기초 사실을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고, 때로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입증에 따르는 곤란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사실 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정하거나 (C) 하기도 한다.

	A	B	C
①	삼단 논법	추리	인정
②	의제	삼단 논법	심증
③	반론	인정	추리
④	심증	연구	삼단 논법
⑤	삼단 논법	심증	의제

정답 및 해설

***지문확인 문제**

1. <답> 법

2. <답> 삼단 논법

3. <답> 추상적 법규, 사실 관계, 판결

4. <답> 증거

5. <답> 어렵다.

6. <답> 없다.

7. <답> 증거조사는 쌍방 간의 다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8. <답> 원고의 주장이 그 자체로서 타당한 근거를 갖지 못하는 경우이다.

9. <답> 부인

10. <답> 부지

11. <답> 원고의 주장을 명확하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자백한 것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진다.

12. <답> 어렵다.

13. <답> 추정, 의제

14. <답> 추정

15. <답> 추정 : 있다. / 의제 : 없다.

16. <답> 소전제가 되는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17. <답>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인 권리나 주장을 전면적으로 긍정하여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그대로 인정하면 증거를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판결로 이어지는 것이다.

18. <답> 법이 공익상의 필요나 사회생활의 필요 등에 의해서 사실로 확정하는 것이다.

***연계 변형 문제**

1	⑤	2	④	3	④	4	③	5	①
6	⑤	7	③	8	⑤	9	④	10	④
11	①	12	④	13	⑤	14	④	15	④
16	⑤	17	⑤	수고하셨습니다.					

1. <답> ⑤

4문단의 '두 사람이 동일 사건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측하여 인정하는 것이 추정의 예인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여야 한다.

오답풀이

① 4문단을 보면 '청구의 인낙'은 대개의 소송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1문단 첫줄에서 확인 가능하다.

③ 3문단에서 '부인'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인정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건에서 피고가 변론(辯論)할 때 취할 수 있는 태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답> ④

2문단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법률상 다른 주장을 펴는 예가 가끔 있는데, 이 경우에도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에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을'이 '갑'의 자전거를 고의로 망가뜨렸다."은 결론이 아닌 소전제이다.

② 물증이 발견되지 못해 증거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심증은 형성되지 않는다.

③ '청구의 인락'이 이루어졌다면 증거 조사를 할 필요 없이 판결이 가능하다.

④ 3문단에서 '침묵'은 자백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나와 있으므로 '을'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다.

3. <답> ④

4문단의 내용을 보면 의제는 어떤 사항이 다른 사항과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두 사항을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로 법이 공익상의 필요 등 때문에 사실 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법 정책적으로

확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제가 법규에 의해 일정한 사실 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확정한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오답풀이
① 4문단을 보면 추정은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단 진실로 가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② '의제'는 본질이 다른 것을 법률상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③ 추정은 의제와 달리 반대 사실 관계가 입증된다면 번복될 수 있다.
⑤ 4문단을 보면 입증에 따르는 곤란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사실 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정하거나 의제한다고 하였다. 그러니 의제와 추정 둘 다 입증에 따르는 곤란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4. <답> ③
'조사'의 뜻은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봄'이다.

오답풀이
① '확정'은 '일을 확실하게 정함.'을 뜻하는 말이다. '체계나 견해, 조직 따위가 굳게 섬. 또는 그렇게 함'은 '확립'이다.
② '적용'은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 씀.'을 뜻하는 말이다. '어떠한 것을 받아들임.'은 '수용'이다.
④ '입증'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함.'이다.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옳지 아니함을 그에 반대되는 근거를 들어 증명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단어는 '반증'이다.
⑤ '번복'은 '이리저리 뒤쳐 고침'이다. '발표한 의사를 거두어들이거나 예정된 일을 없애 버림'은 '취소'이다.

5. <답> ①
이 글은 법이 삼단 논법에 따라 적용되는 과정을 살펴본 후 삼단 논법을 간단히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방법을 원고가 제시한 증거를 피고가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다른 학자의 이론적 틀이 나오지 않았다.
③ 통설의 내용을 분석하지 않고 새로운 해석 방향도 제시되지 않았다.
④ 학자들의 의견을 비교한 것은 확인할 수 없다.
⑤ 저명한 학자의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법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지도 않았다.

6. <답> ⑤
4문단을 보면 추정의 경우 반대 사실 관계가 입증되면 번복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⑤는 잘못된 질문으로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바른 질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삼단 논법에 따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청구의 인낙은 현실의 대개의 소송에서 찾아보기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피고의 변론방법인 부지, 부인, 침묵을 확인할 수 있다.

7. <답>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의 대응책은 3문단에서 다루고 있다. 2문단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인정하는 경우인 '청구의 인낙'과 증거는 인정하면서도 법률상 다른 주장을 펴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법의 삼단 논법의 적용 과정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삼단 논법에 따른 법 적용의 어려운 경우인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피고의 변론 방법인 부인, 부지, 침묵을 설명하고 있다.
⑤ 4문단에서 증거의 기초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추정과 의제의 개념, 사례, 번복 여부를 설명하고 있다.

8. <답> ⑤
이 글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둔 설명문으로 대립적인 견해가 나오지 않으며 그 장단점 역시 분석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법, 추정, 의제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법의 삼단 논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설명하고 그런 경우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적용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③ 추정과 의제에서 각각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 있다.
④ 사실 관계의 확정을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9. <답> ④
'청구의 인낙'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법의 삼단 논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사실 관계를 확정짓기 위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 법을 삼단 논법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청구의 인낙'과 상관이 없다.

오답풀이
①, ②, ③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어휘풀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답> ④
㉮, ㉯는 피고가 아닌 원고가 증거로 인정될만한 자료를 제출해서 입증해야 한다.

11. <답> ①
표제는 글 전체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부제는 그 보충설명이어야 한다. 이 글의 주제는 '법이 적용되는 과정'이고 그것을 삼단 논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에 사실관계의 입증 여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표제와 부제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오답풀이
② 표제에 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③ 4문단에만 속하는 내용이다.
④ 3문단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⑤ 윗글의 주제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12. <답> ④
추정은 어떤 사항과 동일한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다른 사항을,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일단 진실로 가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거짓으로 가정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가정하는 것이므로 ④는 틀렸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확인 가능하다.
②, ③ 3문단에서 확인 가능하다.
⑤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⑤
윗글의 주제는 사실 관계에 따른 법의 적용 과정이다.

오답풀이
① 2문단의 내용만 속한다.
② 3문단의 내용만 속한다.
③ 4문단의 부분적 내용이다.
④ 1문단의 내용에만 해당한다.

14. <답> ④
4문단은 입증할 때 기초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의제와 추정을 통해 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그 사례를 들고 있다. 그리고 번복이 가능한지 여부로 의제와 추정의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오답풀이
① 4문단 전체의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② 3문단의 내용이다.
③ 1문단의 내용이다.
⑤ 1문단의 내용이다.

15. <답> ④
삼단 논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은 대전제가 아닌 소전에 되는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16. <답> ⑤
'을'이 '부지'한 경우에는 '갑'은 그 증거를 증명할만한 자료를 제출해서 입증해야 한다. 자백한 것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부지'가 아닌 '침묵'에 속한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삼단 논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② '을'이 '갑'의 증거를 인정한다면 청구의 인낙이 되어 바로 판결로 이어진다.
③ '을'이 '갑'이 내민 증거를 부인한다면 '갑'은 증거로 인정도리만한 자료를 입증해서 제출해야 한다. 3문단 마지막 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증거의 사실여부를 도저히 증명할 수가 없는 경우, 즉 불가능한 경우는 입증에 따르는 곤란을 피하기 위해 사실 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정하거나 의제하기도 한다. 4문단의 4번째 줄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 <답> ⑤
법의 적용은 **삼단 논법**을 통해 이루어지며 증거가 채택되면 법관은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심증**을 형성한다. 그러나 증거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사실 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정이나 **의제**하기도 한다.